

2001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2001년 국내경제 전망을 하기에 앞서 우선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2001년에 세계경제는 2000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4%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주가하락에 따른 소비위축, 연준의 잇단 금리인상과 IT산업의 실적 악화 등에 따른 투자 증가세 둔화로 성장률이 2000년의 5.2% 정도에서 2001년에는 3%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경제는 정보통신에 대한 수요증가와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으로 투자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경기회복 기대로 소비심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2000년의 1%대에서 2001년에는 2%대로 성장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경제는 세계경제의 고성장·유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호조와 실업률 하락에 따른 소비회복 등으로 2000년 중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



김 원 규 실장
산업연구원 산업계량분석실

장세가 2001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2000년 중 7%대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1년에는 미국경기 둔화 여파와 각국 통화가치의 불안정 등으로 성장세가 6%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은 2000년에 세계경제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10%(수출입물량 평균기준)를 넘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지만 2001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증가율이 8% 내외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2001년의 세계교역 증가율은 1995~99년의 6.8%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각국의 무역의존도 증가와 산업 내 무역의 확산, 무역자유화 확대 등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유가는 2000년에 세계석유 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어 3대 국제유가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12월 6일에는, 2001년 1월분 두바이산 유가가 2000년 7월 25일 배럴당 23.95달러를 기록한 이후 5개월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23.37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주요 경제예측기관에서는 2001년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EFA, IMF, 미 에너지정보국(ELA) 등의 전망치에 기초할 때, 3대 국제유가 기준으로 2000년에 배럴당 평균 28달러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국제유가는 2001년에 25~26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금리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가 99년에 이어 2000년에 들어서도 경상수지 적자,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2000년 11월 현재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는 6.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01년 3월 미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의 소폭 인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99년 2월 이후 제로금리정책을 고수하던 일본은행은 2000년 8월 11일 익일만기 무담보 콜거래 목표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제로금리정책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국제환율의 경우, 2001년에는 전반적으로 달러화 약세 및 엔화강세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에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지속, 일본의 경기회복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과 일본의 제로금리정

책 중단에 따른 미·일간 금리차 축소 움직임 등에 따라 엔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다소 강세를 보여 엔/달러 환율은 2000년의 연평균 107.5엔선에서 소폭 하락한 106엔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으나 98년 8월 저점을 통과한 후 급속한 경기회복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 들어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월에는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였다.

2000년 1분기에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1"의 수준까지 증가한 다음, 2분기에는 "98.0"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3분기에는 "100.0"의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10월에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9"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국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가능할 것이나 향후 대내외 여건이 2000년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견지에서는 2000년 3분기(8월)가 경기정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과 경기동행지수는 2000년 들어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99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

도 99년 12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0년 1~3분기에 평균가동률은 79.9%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0월에는 76.4%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산업생산 증가율은 99년 3분기 이후 둔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0년 2~3분기에는 18.4%로 둔화되었고 더욱이 10월에는 11.6%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되었다.

한편 생산자출하 증가율도 산업생산과 마찬가지로 99년 3분기 이후 둔화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2000년 2~3분기에 18.7%로 둔화되었고 10월에는 9.2%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되었다.

98년에 외환위기의 여파로 97년 대비 93.5%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던 산업생산지수는 97년 대비로 99년에 116.0%, 2000년 1~10월에 135.4%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산업생산지수의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97년 대비 2000년 1~10월의 증가세가 전국의 수준(135.4%)을 상회하는 지역은 경기(187.7%), 충북(159.6%), 경북(141.7%) 등의 3개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전국의 증가세를 하회하고 있다.

또한, 증가세가 미흡한 13개 지역 중 부산, 대구, 강원 등의 3개 지역은 금년 1~10월에 아직 97년

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지역의 산업 생산이 9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기, 충북, 경북 등의 지역과 부산, 대구, 강원 등의 지역간에 성장 껍을 보임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분류 산업별로 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97년 1~3분기 대비로 2000년 1~3분기의 국내총생산 증가를 주도한 산업은 제조업(130.5%), 전기/가스/수도업(122.8%), 운수/창고/통신업(135.0%) 등의 3개 산업을 들 수 있다.

국내총생산의 증가세를 하회하는 나머지 6개 산업 중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등의 국내총생산은 아직까지 97년 1~3분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건설업은 9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00년 1~3분기의 국내총생산이 97년 1~3분기 대비 130.5%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1~10월의 KJET 제조업 경기지수는 97년 대비 135.4%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내 세분류별로는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000년 1~10월에 97년 대비로 제조업의 경기지수 증가를 주도했던 산업은 사무회계용기기(423.5%), 영상/음향/통신장비(285.5%), 기타운송장비(140.3%)

등의 3개 산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타운송장비의 경기지수는 99년에 비해 금년 1~10월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산업들의 대부분은 경기지수가 9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제조업의 증가세에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가죽/신발의 경우에는 오히려 2000년 1~10월의 경기지수가 99년에 비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98년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증가세에 못 미치는 나머지 산업 중에서도 섬유, 가죽/신발, 나무, 종이, 석유정제,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조림금속, 전기기계 등 8개 산업은 2000년 1~10월의 경기지수가 97년의 수준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산업의 생산(또는 경기지수)이 9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운수/창고/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이, 제조업 부문에서는 사무회계용기기, 영상/음향/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등만이 외환위기 이후의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간의 경기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세계경제의 전망과 최근 우리 경제의 현황을 감안하여 **국내경제를** 전망해보면, 우선 경제성장율은 2000년 상반기에 재화·서비스 수출의 증

가에 힘입어 11.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재화·서비스 수출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자와 민간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7.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전체로는 작년 대비 1.5% 포인트 감소한 9.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0년 4분기부터 경제성장이 외환위기 이전의 양상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2001년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금년보다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경제회복, 엔화강세, 국제유가의 하향 가능성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성장률 둔화, 국제유가의 강세기조 지속 등의 불리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개혁 성과의 가시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 가능성,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개혁 성과의 미흡 가능성, 물가불안, 금융 및 자본시장의 불안정 지속, 금리 상승 가능성, 지속적인 투자확대의 한계, 소비심리 위축 등의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비의 경우, 2000년 상반기에

8.7%의 증가를 보였던 최종소비 지출이 하반기에 4.2%로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하반기에 최종소비지출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하반기 들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퇴출과 구조조정 및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 등으로 민간소비 주체들의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는 금년 하반기의 소비 증가율 둔화세가 지속되어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이 연간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1년에 4.2%를 나타내어 금년 수준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경기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심리의 위축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투자의 경우,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고정투자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 13.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정투자 증가율이 하반기에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2001년에는 7.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9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설비투자는 2000년에 정보화투자 확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실적 호조, 내수 및 수출 증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등에 따라, 99년(38.0%)과 비슷한 수준인 39.0%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개혁의 지속과,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2001년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만 13.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98년부터 연평균 10%대의 감소세를 나타냈던 건설투자의 경우, 2000년에도 저조하여 4.0%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001년에는 건설투자가 2.0%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증액(14.1조원→16.0조원)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의 경우, 2000년에 수입이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하나 수출도 21.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17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이 30%대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9%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강세기조의 지속, 그리고 컴퓨터·정보통신산업의 내수 및 수출호조에 따른 전기·전자 부품 관련 수입 급증 등에 기인하고 있다.

수출도 미국경제의 고성장 지속과 일본·EU경제의 회복 등으로 세계경제가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데다, 전세계적인 정보통신화 열풍 등으로 주력 제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호조세가 지속되었다.

2001년에는 수출입 증가율이 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의 급격한 둔화로 수출보다는 수입의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의 수출증가율은 2000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11.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미국경기의 둔화, 국내 자금시장 불안,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대만·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불안 및 성장 둔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2001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4% 내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던 원화환율이 2001년에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의 수입증가율도 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14.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데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국제유가

도 2001년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여 원유수입의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가의 경우, 99년에 0.8% 상승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2000년에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1년에는 3.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0년 하반기 중 국제유가강세,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등에 의해 가중된 물가상승압력이 200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99년에 2.1% 하락했던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2000년에 2.1% 상승하고 2001년에도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가

격이 크게 급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3.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금리의 경우, 2001년에는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9.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라는 금리하락요인이 있으나,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예금부분보장제의 실시, 채권시가평가제의 점진적 확대 시행,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의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환율의 경우, 2000년 들어 달러당 1,100~1,130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11월 중순 이

후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어 11월 말 현재 1,214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1년 상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하락하여 연평균 1,12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1년에 구조개혁의 성과가 미흡할 경우, 전면적인 외환자유화,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실명제 등의 실시와 더불어 외화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하여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